孝悌忠義
父母에게 孝道하고 兄弟間에 友愛있으며, 孝誠을 다하여 節介와 義理를 지킴을 말함

咸安趙氏大宗會報

宗訓 百世清風 崇祖睦宗

2020년 10월 26일 월요일 (음력 庚子 9월 10일) < 1 > 제76호 등록번호 함안 바 0001(등록일 2012. 8.16)

발행처 : 咸安趙氏大宗會 ¦ 발행인 趙旭來¦ 편집인 趙鏞得¦ 함안군 군북면 명관로 4 TEL.055-585-6787~8 FAX.055-585-6869¦ www.hamanjo.net www.hamanjo.co.kr

= 회장 인사말씀 =

2020년 경자년(庚子年) 추석을 맞이하여 종원 여러분의 가내에 조상님의 음덕으로 건강과 만복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전 세계가 연초부터 코로나(COVID-19)라는 전염병 확산으로 엄청난 혼란에 빠졌고, 국제적인 봉쇄조치로 인해 개인 사생활의 통제로 경제활동 또한 크게 위축되어 세계 경제가 침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종회에서도 집회금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정부지침에 적극 동참하여 「祧廟祭」와 「薇薦祭」를 최소 집행요원으로 간소하게 봉행하였으며, 제45회정기총회를 세차례나 연기하여 왔으나 지금까지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급기야 10월 6일 전례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庚子年 함안 3선소 묘향 대책을 논의하였고, 10월 8일 개최한 운영위원회에 상정, 종원의 참여를 자제하고 묘역 봉행대신 각 선소의 재실에서 合祀하고 일정도 貞節公 묘제일인 11월 26일(음 10월 12일) 당일에 봉행하기로 결의하였음을 우선 지면을 통하여 알려드림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대종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서공 묘역에 대한 수목 간벌과 정비사업을 추진중이며,

둘째 영월 어계비원의 안내비와 비원 안내문 등 석조물의 마모된 글자를 재 각자(刻字)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시정공 묘역[경상남도 기념물 제34호]과 정절공 묘역[경상남도 기념물 제283호]처럼 전서공 묘역과 전서공신도비각(典書公神道碑閣), 충의공대소헌선생(忠毅公大笑軒先生) 내외분 쌍절각(雙節閣)이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과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넷째 운영위원회에서 검토 심의된 함조빌딩 대출금상환(4억원)도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다섯째 대종회 보유재산 목록대장을 재정비하였으며, 부동산 특별조치법(2020년 8월 5일 공포)이 2년에 걸쳐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대종회 보유재산의 소유내역을 재차 확인 점검하여 하자있는 재산 종토는 재산분과위원회와 협의하여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전세계 지구인들을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COVID-19) 사태는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야 종식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때 일수록 후손이 건강하고 잘 되어야 선조의 덕업을 널리 현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종원 여러분께서는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종회장 직무대행 조 욱 래 배상

- 庚子年 祧廟祭 및 薇薦祭 奉享 -

조묘제 봉향

庚子年 祧廟祭를 3월 25일(음, 3월 2일) 봉향하였는데, 초헌관 종손 在宇, 아헌관 性勳(斗巖公派), 종헌관 聖來(韜巖公派), 집례 文奎(韜巖公派), 축 東濟(斗巖公派) 종원이 수고 해 주셨고,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정부시책에 따라 종원 참례를 자제하고 전례분과위원회 주관으로 간소하게 치루어졌다.

미천제 봉향

서산서당 생육신 薇薦祭는 4월 4일(음, 3월 12일) 역시 종원과 유림의 참례를 자제하고 간소하게 치루어 졌는데 헌관 漢奎(大笑軒公派), 집례 文奎(韜巖公派), 축 東濟(斗巖公派) 종원이 수고해 주셨다.

또한 3월 末丁(양 4월 14일, 음 3월 22일)에는 虞侯公 후 三忠 선조(鵬, 凝道, 益道)를 추모하는 三忠祭 역시 參議公派(회장 曉濟) 집행부의 소수 집사요원만으로 조용히 봉향되었다.

삼충제 봉향

조묘제 헌성자 명단

단위:천원

성 명	금액	비 고
趙 聖 來	100	대표고문(창원)

慶} 生六臣 漁溪(諱 旅)先生 誕辰 600周年 {祝

2020년 올해 생육신의 한 분이신 貞節公 漁溪(휘 旅)선조 탄신 600주년이 되는 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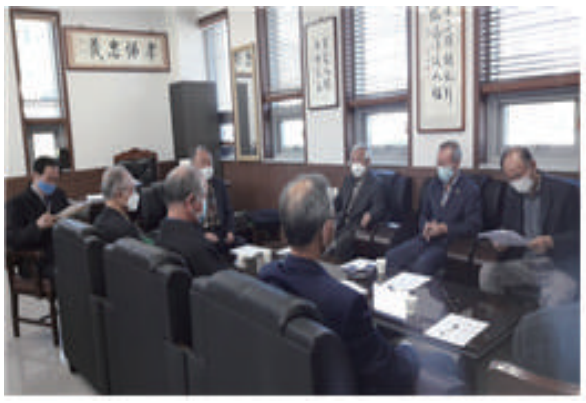
어계 선조는 1420년 세종 2년 함안군 군북면 명관리에서 태어나 1453년 단종 1년에 진사시에 합격하여 태학(太學 : 成均館)에 들어가 공부하시다가 단종이 본의 아니게 임금 자리를 물려줌에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절의로 과거에 응시하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와 은거하시다가 1489년 성종 20년 10월 22일에 돌아가시니 향년 70이셨다.

우리 함안조씨 후손들은 어계 선조의 유지를 받들어 효제충의(孝悌忠義)의 가풍(家風)을 백세(百世)토록 이어가야 할 것이다.

♣ 생육신 어계 선생 탄신 6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함안조씨대종회 : 대표고문 조성래, 대종회장 직무대행 조욱래, 운영위원회 위원일동, 전통문화분과위원회 수석위원 조정규 전례분과위원 수석위원 조문규, 대종회보발간분과위원회 수석위원 조용득, 재산관리분과위원회 수석위원 조국제 홈페이지관리분과위원회 수석위원 조정규, 상벌분과위원회 수석위원 조말래, 청년분과위원회 수석위원 조용찬 대종회 사무총장 조효제, 서산서당 원장 조한규, 함안조씨대종회 종원 일동

◈사단법인 서산서원 : 원장 허권수, 이사장 조성훈



전례분과위원회 개최

지난 10월 6일(화) 11시 대종회 사무실에서 전례분과위원회를 열고 경자년 묘향 봉행 방안을 협의하였다. 이날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부에서도 각종행사을 자제하고 있어, 대종회도 묘향을 11월 25일~26일 이틀간 산소에서 봉행하던 것을 금년에는 재실에서 하루에 봉향하기로 조율하고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였다.

2020년 제2차 운영위원회 개최

지난 10월 8일(목) 11시 대종회 회의실에서 제46회기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운영위원회를 개최, 현안에 대한 토의를 하였는데, 이날 조욱래 회장직무대행이 회무보고를 한 후, 함조빌딩 대출금 상환계획, 경자년 묘향 대책을 논의하였다. 특히 경자년 묘향은 정부방침에 따른 거리두기로 전례분과위원회 주관 필수인원으로, 3선소 각 재실에서, 11월 26일(음 10월 12일) 봉행하기로 결정했다.

판결사공 후 통정공파 세거비 수비

2020년 4월 6일「경북 고령군 성산면 오곡리」에서 판결사공 후 통정공파(파조 휘 逸道)의 후손들이 입향 세거비를 수비하였다. 많은 후손들이 참석하여 행사를 진행하려했으나「코로나19」로 인하여 수비만 하고 행사는 취소되었는데 많은 후손들이 안타까워했다.

임진왜란 무렵인 430여년전 함안조씨 판결사공 휘 績(적)의 증손인 17대 통정공 휘 일도(逸道)께서 이곳 오곡리에 입향 세거하였다. 그후 통정공(휘 逸道) 차남 휘 豪南의 증손자인 태구(泰九, 21대)는 인조 기해생으로 양산군 원동면 어영리에 입향 세거하였다.

고려조에 대장군 원윤을 지낸 휘 趙鼎(조정)이 입향조의 시조이고, 고려말 工曹典書를 지낸 휘 悅(열)이 7대조이며, 조선 단종조에 생육신의 한 분이신 정절공 휘 旅(려)가 5대조이고, 진상공 휘 동호(銅虎)가 高祖父이며, 단성부사, 밀양부사, 경주부윤, 장예원 판결사(정3품)를 지낸 휘 績(적)이 曾祖父이고 휘 庭桂(정계)가 祖父이며 충순위를 지낸 휘 元宗(원종)이 父이다. 입향 세거 사실을 남기고자 통정공 후손들이 여기에 세거비를 세우다.

2020년 월 일 통정공파 후손 相濟 謹記

집의공파 정기총회

庚子(2020)年 집의공파 (파조 휘 參) 정기총회가 5월 23일(토) 10시 「함안군 함안면 괴산리」 소재 무진정(無盡亭) 경내 괴산재(槐山齋)에서 종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코로나19」 사태로 해마다 석가탄신일에 열려왔던 화려한「낙화놀이」도 취소된 아쉬움 속에 본향 위주의 간소한 모임을 예측하였으나 이외로 부산, 청송, 의령 등지에서 많은 종원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총회에서 경상 심의안건 외에 특별안건으로 무진정 초입에 위치한 종토 91평의 매각처분을 결의하였다. 본 건은 2018년부터 도비, 군비 11억1,400만원을 들여 추진해 왔던「무진정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행정관청에서 수용 요청이 있어, 문화유산 (지방문화재 제158호) 보존에 적극 협조하는 뜻에서 만장일치로 함안군에 매각하기로 결의하였다.

판결사공 후 통정공파 파조 諱 逸道(일도) 묘소사진

사단법인 서산서원 소식

서산서원 300년사 발간 告由祭

사단법인 서산서원(이사장 조성훈)이「서산서원 300년사」을 출간했다.

출간 기념으로 2020년 6월 5일 11시 서산서원 경내에 있는 生六臣 전에 고유제를 올렸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종원 참석을 자제하고 이사진을 중심으로 18명이 참석하여 헌관 趙性勳 이사장, 집례 趙文奎 대종회 전례위원장, 축 趙權濟 대종회 자문위원, 찬인 趙曉濟 대종회 사무총장이 수고해 주었다.

신임원장 취임 고유제

故 道庵 李正均(載寧人) 서산서원의 원장후임으로 實齊 許捲洙(金海人) 한문학 박사를 추대하여 2020년9월 25일 11시 취임을告由하였다.

신임 許捲洙 원장은 1952년 정월 함안군 법수면 輪山마을에서 태어나 10세에 '단군신화'를 접하고 나서 국사와 한문에 심취, 17세에 淵民 李家源 선생의「漢文新講」을 시초로 일생을 한문공부에서 떠나 본 적이 없었다. '조선후기 문묘종사와 예송의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1983년부터 34년간 국립경상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연구실적으로 120여편의저서를 남겼고, 학사 1천여명, 석사 1백여명, 박사 10여명을 배출하는 등 후학양성에 힘썼으며, 정년퇴임 후「東方漢學硏究所」와「實齊書堂」을 열어 강학 중인 함안 출신의 碩學이다.

중국, 홍콩 대만 등을 다니며 한문전공 서적 7만 여권을 수집 소장하고 있는 장서가 이기도 하다.

서산서원 300년사

함안조씨 문적총관 연재 〈6〉

⑥烈-⑧之興-⑨天啓-⑩悅-⑪安-⑫旅-⑬銅虎

○시정공(寺正公) 휘 안(安)의 장손이요, 어계공(漁溪公) 휘 여(旅)의 장남이다.

□행장(行狀)

공의 자는 정부(貞符), 초휘는 동호(洞虎). 세종 23년 신유(1441) 5월 27일 함안군 원북동에서 출생하셨다. 예종 1년(1469)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무예가 능해서 성종 7년(1476)에 호분위 부장(虎賁衛部將)이 되었다.

성종 11년(1480) 사옹원 주부(司饔院主簿)에 이임(移任)하였고,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에 천임(遷任)되었다. 성종 14년(1483)에 모친상을 마친 후 다시 감찰(監察)에 제수되고, 노친(老親)을 위하여 외직을 자청하여 거창과 무주의 현감에서 군자감 주부(軍資監主簿)에 제수되었다. 부친상을 당한 후 성종 23년(1492)에 청하 현감, 1497년 감찰, 1498년 영산 현감, 사옹원 판관(司饔院判官), 사온서령(司醞署令)을 지내고, 1504년 진산 군수, 1508년 영덕 현령을 역임하였다. 1513년 연로하여 사직하고 함안으로 돌아왔다. 중종 12년(1517) 3월 27일에 돌아가시니 향수(享壽)가 77세이다. 증직(贈職)은 가선대부 이조참판(嘉善大夫吏曹參判) 겸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이다. 묘소는 함안 하림 방어산 기슭 유좌 언덕에 있고, 묘갈명은 우참찬 최숙생(崔淑生)이 지었다.

배(配)는 증 정부인(贈貞夫人) 고성 이씨(固城李氏)이며, 아버지는 현감으로 증 이조참판 증(增)이고, 조부는 좌의정 철성부원군 원(原)이다. 세종 29년 정묘(1447)에 출생하여 중종 14년(1519) 9월 5일 졸하시니 향수(享壽)는 73세이다.

○ 함주지 총담(咸州誌叢談)

조공 동호(趙公 銅虎)

관직을 사직하고 집에 있을 때 적삼 하나를 걸치고 죽장 짚고 아이종을 데리고 산과 들을 산책하며 지냈다. 길가 나무 그늘에서 땀을 씻고 몸을 드러내어 더위를 식히고 있었는데, 길 가는 나그네가 보고, "복 많은 사람이구나. 저 고불(古佛, 노인을 일컫는 방언)이여!" 하였다.

몸이 비대하여 젖가슴이 처지고 배가 나온 의젓한 풍채를 보고 길손은 "만약 문학과 무예에 종사했으면 반드시 귀인이 되었을 것이다." 하였다. 공은 미소를 짓고 대답하지 않았다. 이윽고 공의 아들 순(舜)이 사성(使星, 임금의 명으로 지방에 출장 가는 벼슬아치)으로 귀성하는 길이어서 추종(趨從)하는 사람들이 길을 가득 메우니, 나그네가 그제야 짐을 얼른 지고 달아나면서 말하기를 "내 보기에 수상하더니 과연 그렇구나." 하였다. 공의 평소 생활이 검소한 것이 이와 같았다.

○ 증 참판 진산공 동호 묘갈명

공의 휘는 동호(銅虎), 자는 정부(貞符)로 함안인이다.

증조 휘 열(悅)은 가선대부 공조전서요, 조부 휘 안(安)은 벼슬은 못하고 일찍이 별세 하였으며, 아버지 휘 여(旅)는 진사요, 어머니는 흥양 이씨(興陽李氏)로 고성현령 휘 운(運)의 따님이다.

공은 세종(世宗) 23년(1441) 신유 5월 27일에 출생하시어 기축년(1469)에 한언(韓堰)이 장원한 때에 진사에급제하고, 성종(成宗) 7년(1476)에 무예가 능하여 호분위(虎賁衛) 부장(部長)이 되고, 성종(成宗) 11년 (1480)에 사옹원 주부로 옮길 즈음 모부인 상을 당하였고, 성종(成宗) 14년(1483)에 사헌부(司憲府) 감찰(監察)이 되었으나, 노친(老親)을 위하여 외직(外職)을 원하여 거창 현감(居昌縣監)으로 나갔으며, 얼마 안 되어 부인의 종생질 이육(李陸)이 관찰사가 됨에 무주 현감(茂朱縣監)이 되고 임기를 마치고 군자감(軍資監) 주부가 되었으며 부친상을 당하였다.

성종(成宗) 23년 (1492)에 청하현감(淸河縣監)에 재임 중 3년이 못되어 할머니 상을 당하였는데 세 번의 상(喪) 전후 9년을 모두 여묘(廬墓)에서 상을 마쳤다. 연산(燕山) 3년(1497)에 사헌부 감찰에 제수되고 사온서령(司醞署令)으로 옮겼다가, 갑자년(1504) 여름에 진산군수(珍山郡守)가 되었다.

이때에 연산(燕山)의 실정으로 백성들이 왕명(王命)을 견디지 못하여 사방으로 떠도는지라 공이 진심(盡心)껏 다스리니 온 지경 안이 믿고 의지했다. 병인년(1506) 가을에 칭병(稱病)하고 돌아오니 그해 9월에 금상이 정국(靖國)하고 무진년(1508) 가을에 영덕현령(盈德縣令)이 되고 계유년(1513) 가을에 나이를 이유로 사직하고 함안 집으로 돌아왔다. 그때 공의 아들 순(舜) · 삼(參) · 적(績)은 모두 문과에 급제하고 명성이 조정에 높았으나 노친 때문에 외직을 맡아 순(舜)은 김해, 삼(參)은 함양, 적(績)은 단성에 솥발처럼 나눠 있으면서 번갈아 문안을 드리고 차자(次子)인 건(騫) 또한 본도 수군(水軍)우후(虞侯)로서 자주 와서 뵈옵기도 하였다. 막내아들 연(淵)은 학식이 높았고, 창(昌)과 발(發) 역시 관훈(官勳)이 있었다.

공이 부인과 더불어 아무 탈 없이 집에 계시니(無恙在堂) 7형제가 잔을 올려 축수하니, 즐겁고 화평한 그 무궁함이 고래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정축년(1517) 3월 27일 정침에서 별세하였는데 향수가 77세요, 그해 12월 11일 방어산 기슭에 장사하였다.

공은 천성(天性)이 순후(醇厚)하고 수식(修飾)을 일로 삼지 않았으며, 충실하여 은혜를 베푸니 이르는 곳 마다 유애(遺愛)가 있었다.

공이 별세함에 부의와 제문을 지어 와서 통곡하는 이가 이어졌다. 부인 이(李)씨는 증 이조참판 휘 증(增)의 따님이요, 좌의정 철성부원군 휘 원(原)의 손녀이다. 7형제를 낳았는데, 큰아들 순(舜)은 임자년에 급제하여 사간원(司諫院)과 한림원(翰林院)에 출입하고 승정원(承政院) 승지(承旨)가 되었으며, 장수(將帥)의 재질(才質)이 있어 충청도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를 배명 받았다. 을해년 겨울에 어버이 모시기를 원하니, 조정에서 김해부사를 제수하였다.

창(昌)은 어모(禦侮)장군(將軍)이요, 삼(參)은 정묘년에 급제(及第)하여 예조(禮曹) · 병조(兵曹) · 형조(刑曹) 등 여러 조(曹)의 낭관(朗官)을 지냈고, 계유년 가을에 함양군수(咸陽郡守)를 제수 받았다. 적(績)은 계유년에 급제하여 교서관(校書館) 정자(正字)에 선출되고 병자년 겨울에 성균관(成均館) 전적(典籍)으로서 단성현감(丹城縣監)이 되고, 발(發)은 창신교위(彰信校尉)요, 건(騫)은 우후(虞侯)요, 연(淵)은 진사이다. 순(舜)은 진사 정희영(鄭希英)의 따님에게, 창(昌)은 통찬(通贊) 배서(裵瑞)의 따님에게, 삼(參)은 절도사 이거인(李居仁)의 따님에게 장가들어, 아들 정균(庭筠)과 정백(庭柏)을 낳고, 사위는 이변(李玣)과 신공헌(申公獻)과 정의(鄭毅)요, 적(績)은 군수(郡守) 유수장(柳壽長)의 따님에게 장가들어 아들은 정지(庭芝), 정란(庭蘭),과 정계(庭桂)요, 사위는 양수해(梁受海)와 생원 문옹(文翁)과 이공보(李公輔)요. 발(發)은 참의 배명후(裵孟厚)의 따님에게 장가들고, 건(騫)은 부사직 최승준(崔承濬)의 따님에게 장가들어 아들은 정수(庭秀)와 정견(庭堅), 정화(庭華), 정언(庭彦)이요, 사위는 정계아(鄭繼雅)와 강속(姜涑)이며, 연(淵)은 진사 조치당(曺致唐)의 따님에게 장가들었다.

이제 순(舜)의 벼슬이 이품(二品) 직에 오르자 나라에서는 위 3대의 작위(爵位)를 높여 주니 공(洞虎)은 참판(參判)이요, 진사공(旅)은 통정대부 승정원(承政院) 도승지(都承旨)지 겸 경영참찬관(經營參贊官) 상서원정(尙書院正)이며, 벼슬 하지 않은 안공(安公)은 통훈대부 사복시정(司僕寺正)을 증직 받았으니, 아! 영광스럽도다. 선대의 음덕(蔭德)과 적선(積善)함이 아니면 어찌 이러 하리요?. 김해부사인 나 숙생(淑生)과는 교분이 깊은지라, 사람을 보내 명을 청하거늘, 의리상 사양할 수 없어 명(銘)하노라.

수와 복이 비록 운명이라고 하나,
어진 자에게 반드시 따르고, 어리석은 자에게는 요행이라.

자고로 그러한데 힘으로 다루기 어렵도다.
아름다운 조씨 가문에 자손들은 어질어,

어지러이 융성함이 옥을 이은 듯하고,
잔 들어 번갈아 어버이께 헌수하니,

벼슬한 많은 아들 내의 채복이 빛나도다.
적선이면 필유여경이라 하였으니 어찌 그렇지 않으랴!

반드시 경사가 이어질 것이니라.
나의 명이 아첨이 아니니 저 하늘이 징험하리라. 충재(忠齋) 최숙생(崔淑生) 짓다.

故 中山 趙東輝 前會長 遺墟碑 除幕式

지난 6월 12일 경북 예천군 풍양면 섭이산 자락 선산에서 고 조동휘(중산, 어모공파) 전 회장 유허비 제막식이 거행되었다.

이날 화창한 날씨 속에 가족 친지, 대종회 조욱래 수석부회장 외 15명 등 50여명이 모여 엄숙하고 성대하게 제막식이 거행되었다.

평소 고 조동휘 전 회장의 업적과 치적, 살아온 인생사를 비문에 새겨 후세에 귀감이 되도록 하였다.

조동휘 전 대종회장 경북도청에 나무기증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경북도 관계자, 조재환 기증자 가족 등이 한 자리에 모여 기념촬영 (경북도 제공)

경북도청 본관 앞마당에 귀한 백송(白松) 한 그루가 자리를 잡았다. 안동의 대표 향토기업인 대원석유 고(故) 조동휘 명예회장의 가족들이 고인의 유지에 따라 기증한 것이다.

지난 6월 19일 도청 앞마당에서는 도 관계자, 기증자 가족들이 참석, 기념식수 행사를 했다. 이번에 기증한 나무는 백송을 비롯해 배롱나무, 주목, 반송 등 7종 151주에 달한다. 시가로 환산하면 5억7천500만원어치다. 경북도는 이 나무들을 청사 일대에 심어 아름답

고 조동휘 회장은 1930년 예천군 풍양면에서 태어났다. 이후 김천중, 보성고를 거쳐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원석유 대표이사, 안동상공회의소 회장, 대한적십자사 경북지회장, 함안조씨대종회 회장, 병산서원·월봉서원·임천서원 원장을 지냈다. 고인은 평소 소탈하고 검소한 생활을 유지한 선비의 표상으로 알려졌다.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자랑스러운 안동시민상을 받기도 했다.

(慶) 제21대 총선 趙慶泰, 趙承來 국회의원 당선 (祝)

2020년 4월 15일에 치루어진 제21대 총선에서 동갑내기(1968년생, 52세) 慶泰(來, 參判公派), 承來(斗巖公派) 두 종원이 나란히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국민의 힘 최고위원 慶泰(來)는 부산 사하을구에서 중진답게 당당히 5선에 성공하였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承來 종원은 대전 유성갑구에서 재선되었다.

조경태 국회의원

출 생 1968년 1월 10일 (만 52세) 경남고성
소 속 국민의 힘
지역구 부산 사하구 을
학 력 부산대학교 대학원 졸업 공학 박사 등 4건
수 상 2019 제8회 국회를 빛낸 바른정치 모범 언어상 등 19건
경 력 국민의 힘 최고위원 등 44건

조승래 국회의원

출 생 1968년 2월 21일(만 52세) 충남 논산
소 속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대전 유성구 갑
학 력 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평화안보학석사 졸업 등 4건
수 상 2020법률소비자 연맹 국회의원 헌정대상 등 16건
경 력 2020. 2.26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위원 등 40건

조노제 함안우체국장 34년 공직생활 마무리

조노제 (내헌공 후 두암공파) 함안우체국장은 34년 공직생활을 고향 함안에서 영예롭게 마무리하게 되었다. 올 12월 말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는데 그간의 공로로 녹조근정훈장을 수상할 예정이다.

조 국장은 함안초, 창원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1986년 함안우체국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으며, 2015년 7월 1일자로 행정사무관으로 승진 임관한 후 김해우체국 우편물류과장, 마산우체국, 진주우체국에 근무하였으며, 금년 1월 1일 제42대 함안우체국장으로 취임했다.

조 국장은 함안 괴항리 출신으로 조웅제 경상남도 감사담당관의 형이기도 하다. 조 국장은 34년간 공직생활 중, 28년을 함안우체국에서 근무하면서 함안우체국의 발전에 기여 해온 함안우체국의 산증인으로 평가 받고 있다.

조웅제 종원 경남도 감사담당관 승진

지난 6월 12일 제27대 함안군 부군수 조웅제(趙雄濟, 55, 내헌공 후 두암공파) 종원이 부이사관(3급)으로 승진하여 경상남도 감사담당관으로 발령 받았다.

조 부군수는 함안군 함안면 괴항리 출신으로 1990년 1월 김해시에서 첫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1995년 경남도로 전입, 2008년 사무관으로 승진 후 전국체전기획단 체전기획 담당, 공보관 공보기획 담당, 세정과 세입운영 담당, 국가산단추진담당 등의 요직을 두루 거친 후 2019년 1월 함안부군수로 부임한지 1년 6개월이 되었다. 조 부군수는 추진력이 뛰어나고, 소탈한 성품과 친화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조 부군수는 조노제(전 함안우체국장) 동생이기도 하다.

조창래 종원 사무관 승진

지난 7월 1일 함안군 조창래 종원(趙昌來, 55)이 사무관으로 승진하였다.

조창래 사무관은 가야읍 출신으로 1991년12월 28일 지방행정 서기보로 가야읍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이후 차량등록사업소 등록 담당, 혁신성장담당관 일자리 창출 담당, 함안지방공사 파견 경영지원팀장을 거쳐 이번 인사에서 사무관 승진의 영광을 안았다.

종회보에 올릴 각종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이 게재하고자 하는 글(행식에 구애받지 않음)도 좋습니다. -

종회보 편집국 FAX. 055)585-6869, E-mail 56cho56@hanmail.net

조재섭 청와대 입성

조 재 섭

조종연(鍾連, 80세, 대소헌공파) 대종회 자문위원의 차남 재섭(在燮, 73년생)군이 금년 9월 청와대에 입성했다.

재섭군은 연세대를 졸업, 제45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통일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통일부장관 비서관,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실 비서관으로 근무중, 이번에 청와대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실 행정관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아울러 장남 재빈(在彬, 70년생 : 종회보 제75호 6면 참조))군은 차장검사로 승진하여 금융위원회 조사기획관으로 근무하다가 9월에 부산지방검찰청 제1차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다.

조덕제의 「권력의 속성과 섬뜩한 정치풍자 이야기」

'권력의 속성과 섬뜩한 정치풍자 이야기'의 저자 조덕제(51년생, 참판공파)은 경주 출신으로 경주고등학교, 동아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받고 경상대학교 대학원에서 철학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공무원, 교직원, 회사 생활을 하기도 했다. 저자는 교직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 온 아내와 40년간 정든 창원에서 여행과 독서를 즐기며 본인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소박하게 살아왔고, 또한 그리할 것이라 한다. 저자는 40년 전 1980년에 「조지 오엘의 구와 위선을 통렬히 비판하고 싶었다고 했다. 풍자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여기에 사족을 더하여 책을 쓰게 되었는데 평등을 외쳤지만 평등하지 않은 정치의 허구와 위선을 통렬히 비판하고 싶었다고 했다.

대한 독립선언서 선포 101주년 기념식 개최

대한 독립선언서 선포는 최초의 독립선언으로 3·1독립만세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에 기폭제가 되었다.

국가보훈처는 우리나라 최초의 독립선언으로 3·1독립만세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에 기폭제가 된 '대한독립선언 선포 101주년 기념식'이 2020년 2월 1일(토)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대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조승래 및 (사)조소앙선생기념사업회 (회장 조형래)주관으로 열렸다.

조형래 「함안 향교추계 석전대제」 대축관을 하다

지난 9월 28일 10시 함안향교에서 '추계석전대제'를 올렸다. 대종회 전례분과위원회 위원인 조형래((瀅來, 48년생, 내헌공 후 도암공파)가 대축관으로 참여했다. 조형래 종원은 함안 산인 출신으로 창신고를 졸업한 후, 농협에 34년간을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산인유도회 총무로 있으면서 함안향교의 감사를 맡고 있으며, 경남도 무형문화재 제13호인 함안 화천농악 기능 이수자로 활동하고 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焦川 趙鍊奎(韜巖公派) 대종회 고문께서 2020년 5월 17일(향년 90) 별세하셨다.

함안군 산인면 수동 출신으로 경찰공무원으로 정년퇴임하신 후, 韜巖公派 宗會長, 대종회 전례분과위원장, 西山書堂 院長등 대종회 발전에 노심초사하셨고, 평소 소리를 높이시지 않으시어 조용하고 인자한 어른으로 존경받으셨다.

젊은 날 6.25참전 공적을 인정받아 함안추모공원 「국가유공자 묘역」에 安眠하셨다.

◐ 漁溪 할아버지 전설 이야기 ◐

□ 법수면 강주리 매바위(鷹岩) □

매바위(鷹岩)를 경상도의 방언으로 매바구라고 발음하고 있다. 이 마을은 가곡에서 서편으로 1km정도 떨어진 마을인데 본동, 새터, 새동네, 미남이, 4개의 자연 부락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400 여 년 전에는, '늪지대' 인 이곳에, 사람들이 이주를 해 와서 마을을 이루게 되었다.

이 마을을 둘러 싼, '산' 들의 '형상' 이 '매'가 날개를 펴고 나는 모습이라고 해서 매바구(鷹岩)라고 했다. 바위가 많은 암산(岩山)이어서 매바위라고 불려지게 되었으며 한자로 옮긴 것이 응암(鷹岩)이다.

매바구 하면, 조선시대 '생육신'의 한 분이신 조려(趙旅) 선생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의 유택이 그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조 려(趙 旅) 선생은, 세조의 왕위 찬탈을 '불안정되게 뻗어갔는지, 그 산 앞의 들판이, 얼마의' 라고 생각 하고 낙향하여, '백이숙제'(伯夷叔齊)의 정절을 몸소 실천하기 위해 백이산에서 은둔하고 있었다.

그는 담담한 자세로, '백이산' 에서 고사리를 뜯으며, 한결 같은 지조를 지켰다. 그의 머릿 속에는 시퍼런 칼날 같은 문구가 자신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 "충신(忠臣)은 불사이군(不事二君)이라." □

그는 한양에 있는 성균관 친구들이 내려 와서 벼슬하기를 몇 번 권했지만, 모두 뿌리 치고, 함안 땅에서 자리 잡고 여생을 보낼 것을 다짐했다. '나는 내가 자란 이곳 함안 땅에 내 뼈를 묻어 내 자손의 번창을 위하는 혼이 되고 싶다.' 이곳 함안 땅 어느 곳에다 조용한 자신의 유택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어디로 나 기름진 땅인지를, 예사로 보지 않았다.

그도 어느덧 나이가 들어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고 있었다. 머리가 하얗게 세어 가고 있었고, 영혼의 쉼터를 찾아두고 싶은 나이가 되었다. '사(死)는 한 가닥 구름이 소멸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랴. 나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나의 후손들이 '백세청풍' 살아가기를 기원하고 싶구나. 영혼의 보금자리를 생각하고 싶다.'

그는 그날부터 함안 땅의 이 곳 저 곳을 다니며 산수 좋고 땅이 기름진 마을을 찾아 다녔다. 어느 때는, 험한 산을 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배를 타고 강을 건너며 산세를 살폈다. 그러면서도 그는 선비의 태도를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는 그의 생활신조를... 책과 함께 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 항상 책을 읽으며 그 이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그의 일과였다. 책을 읽으며, 그 이치를 깊이 생각 해서 눈으로

(6면에 계속

(5면에 이어서 ~
만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의 눈으로서 산수를 이해하고 보았다.

그의 손에서는 논어, 맹자, 주역의 책이 떠나지 않았다. "사물을 깊이 생각을 하면 모든 것이 다 통하는 법이야. 그렇게되면 나무와도 말을 하게 되고 바위와도 말을 하게 되지." 그 결과, 그는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눈에 보였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 싫어 얼굴을 찡그리는 것에도 애정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아주 깊은 사색에 잠기기도 했다. 조용히, 깊은 산속의 바위 위에 앉아 있으면, 구름이 흘러가는 소리도 들렸고 그런 시간에는 천년 전의 공자의 말씀도 들리는 것 같았다. 어쩜 그는 이 세상의 일상을 초월한 도인과도 같은 깊은 사고를 했다. 솔바람 부는 바위 위에 다리를 꼬고 앉아 조용히 명상에 잠긴 모습은 시간을 초월한 도인처럼 담담했다. 금세라도 구름을 불러 타고, 하늘을 나를 것 같았고, 길게 휘파람을 불면, 호랑이들이 나타나 도인을 태워 갈 것만 같았다.

그는, 그런 깊은 사색의 눈으로, 함안의 이곳 저 곳을 다니며, 고향의 산수를 두루 살폈다. 산세가 아름다우면 그곳에 앉아,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깊은 생각에 잠기거나 책을 읽기도 했다. "아, 참으로 내 고장 함안 땅은 아름다운 곳이구나." 그렇게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그는 늪지대로 보이는 어느 한곳에 머무르게 되었다. 그 곳은 땅이 기름지고, 주변에 푸른 강물도 흘렀고, 낮은 산들도 평화롭게 보였다. 그는 그곳이 좋아, 주변의 산수를 살펴보고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곳은 그가 평소 꿈꾸어 오던 이상향처럼 보였다. '모든 사물에는, 그 만의 특성이 있는 거야. 그 특성을 예리한 눈으로 읽어낼 수 있는 것은 자기만의 능력이야.' 그는 주변의 산수를 두로 살피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저산의 형상을 보면 이곳은 하늘이 내린 명당이야. 야트막한 산들이 웅크리고 있는 형상이, 마치, 매가 날개를 펴고, 막 날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 더구나, 그 산의 봉우리에 있는 하얀 바위는, 매의 눈처럼 보이고 산자락에 있는 바위는 매의 예리한 발톱처럼 보이는구나. "

그는 그 주변의 야트막한 산들이 마을에 들었다. "그 무슨 '악귀'라도 이곳에는 '범'하지 '못할 것'이다. 저 무서운 매가 저렇게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있지 않는가."

그는 마을 뒷산으로 올라갔다. 산중턱에 서서 그는 앞쪽의 들을 내려다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한 얼굴이 되었다. "저 넓고 기름진 넓은 들에 농사를 지으면 얼마나 좋을고."

"저 멀리 앞에, 남강이 사시사철 흐르니, 농사짓기에 얼마나 좋은가." 그는,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 하고 포근한 자리 같았다. 그 뒤의 산세도 급하지 않았고, 산의 능선도 아름답게 뻗어 나갔으며 앞으로 훤하게 트인, 들판이 주는 시원함은 모든 사람들에게 안온함과 평화를 줄 것 같았다.

"저 넓은 들, 저 강, 그리고 이렇게 매가 날개를 펼~ 듯하는 산의 형상. 이보다 좋은 곳이 있을까!" 그는 고개를 들어 멀리 있는 산들을 살펴보았다. 해가 뜨고, 지는 산봉우리도 멀리 보였다. 남쪽 멀리에서, 우뚝 솟은 산봉우리가 유독 눈길을 끌었다. 물줄기가 모두 그 산에서 내려오는 것 같았다.

란 것은 오늘 이 시간 신(神)의 계시 같은 이 조화가 자기에게 길(吉)한 것인지 흉(凶)한 것인지 가슴이 떨렸다. "아! 길한 일인가 흉한 일인가? " 그러다가 그는 아주 단순한 한 가지 논리가 떠올랐다. "쥐란 속성은, 12간지의 가장 첫째이니, 귀 (貴)라고 하며, 길(吉)한 동물 그러다 북쪽의 이상한 형상을 한 산을 보고 그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저 산의 형상이 수상한데. 꼭 고양이를 닮았구나. 아무래도 꺼림직한데.' 그러다- 그는 눈을 돌려, 다시 멀리 남쪽에 우뚝 솟은 산으로, 눈을 돌렸다. 그 높은 산도 어쩐지 마음에 편안 함을 주지 못 했다.

"산은 북쪽이 높아야 하고 남쪽이 낮아야 하는데, 저산은 남쪽인데도, 산이 높아서, 모든 물을 거꾸로, 흐르게 하고 있구나. 남쪽에서 북쪽으로 물을 흘려 보내고 있구나." 그는

멀리 남쪽에 우뚝 솟아난 그 산봉우리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여항산(餘航山)이었다. 우람한 산세로 그 주변의 산들을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아득하게 솟은 산봉우리가 하얀 구름에 싸여있고, 더구나 물줄기를 산자락에 품고 있었다. 이곳 들을 향해 흘러 내려오는 크고 작은 강, 시내 등이 모두 그곳 산에서 시작되는 것 같았다.

"으음 여항산이 이 넓은 들판을 지휘하는 장군처럼 우뚝 솟아있구나."

"으음, 저 산이 어쩌면, 이 모든 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지도 몰라...

그 쪽에서 발원되는 강, 시냇물이 여기 까지 흘러 오면서, 젖줄 처럼

모든 생물을 먹여 살리고 있구나."

그는 숨을 멈추고 그 산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 는 그 산에서, 어떠한 영감 같은것을 받았는지, 눈을 뗄 수 가 없었다.

마치 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그 산의 형상이며, 흘러내려 오는 강, 시내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보통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물을 깊이 관찰하고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그의 눈에 나타났다.

도인에게만 나타나는 신기한 현상이었다. 멀리 여항산을 바라 보고 있는 그의 눈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다. 눈이 아슴아슴 희미해지면서 아지랑이 같은 것이 눈 앞에서 아른거렸다. 그러더니 정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다. 무언가... 까만 점들이 수 없이 그 여항산에서 그가 바라 보고 있는 넓은 들로 향해 내려 오는 것 같았다. 마치 까만 콩 수백 포대가 땅 위에 풀어지듯이, 까만 점들 수 천 수 만 개가 여항산에서, 그가 서 있는 들판으로 스스슥 소리를 내며 내려오는 것이었다.

그는 섬짓해 오는 무서움까지 들어 몸을 움츠리기까지 했다.

"저 까만 점들이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 까만 점들이 가까이 오자 점점 커지는 것이었다. 그 까만 점이 온 들에 바둑알처럼 퍼지자, 그는 눈을 부릅뜨고 자세히 보았다. 그는 그 물체를 확인하고는 깜짝 놀랐다. 수천 마리의 쥐가 들에 내려와서 그 많은 곡식을 그 작은 입으로 야금 야금 먹고 있지 않는가! 그것도 아주 평화롭게 노닐면서... "아, 쥐떼들이 아닌가?"~ 그는 놀라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가 놀이 아닌가. 내 자손이 자손만대 오란 것은 오늘 이 시간 신(神)의 계시 같은 이 조화가 자기에게 길(吉)한 것인지 흉(凶)한 것인지 가슴이 떨렸다. "아! 길한 일인가 흉한 일인가? " 그러다가 그는 아주 단순한 한 가지 논리가 떠올랐다. "쥐란 속성은, 12간지의 가장 첫째이니, 귀 (貴)라고 하며, 길(吉)나의 후손들이 저렇게 평화롭게 노는데 저 많은 고양이 떼들이 침입해 오다니. 저놈 괭이산이 처음부터 수상하게 보이더라니." 그는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랐다. 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괭이산에서 내려오는 고양이 떼를 바라보고 숨을 헐떡거렸다. 그는 당장이라도 그 쪽으로 달려가서 고양이 떼들을 막아서고 싶지만 수 백 마리의 고양이를 막아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더구나 그 괭이산까지의 거리가 아주 먼 거리였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고양이무리들이 산등성이를 빠르게 내려 오다가 산자락에 와서 모두가 우뚝 멈추어 서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만 있었다. 더 이상 가까이 내려오지 못했다.

그는 조금 더 높은 곳에 올라가 그 괭이산을 내려다보고 싶었다. 그는 산 중턱에 까지 올라가서, 숨을 헐떡거리며, 그 쪽을 자세히, 살피다. 안도의 숨을 내 쉬었다. "그럼 그렇지. 하늘이 나의 후손들을 도운거야 자손만대로 나의 후손 에게는 평화가 있을 것이다. 고양이 떼들이, 시퍼런 강물에 막혀서... 오지 못하는군. 하하하 하하하하." 그는, 평화로운 들판을 보며, 자신이 서 있는 곳의 산세를 아래위로 살펴보고, 주변의 산세도 함께 살폈다.

"저 괭이산의 산세가, 조금 위험하지만, 푸르게 흐르는 남강의 물이 앞을 가로 막아서, 고양이의 침입을 막는 형국이지, 뒤 로는... 매가 날개를 펴고, 이 산을 지키고 있지. 앞 들판은 기름진 곳이지. 으음! 천하의 명당이다."

그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자신이 생각한 것을 글로 남겼다. 그는, 후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붓으로 또박 또박 화선지에 쓰기 시작했다. 매바구는, 산의 형세가 '매'처럼 용맹스럽게 생겨서, 자기의 주변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 산에는 의롭고 평화로움이 깃들인 곳이다.

그리고 그 앞 들판에는, 쥐떼가 수 없이 모여드는 형상이니 자손의 번창을 비는곳이 될 것이다. 그 앞으로는, 남강이 흐르고 있어서 주변의 위협을 막아 줄 것이니 만세청풍의 지리적 조건을 갖춘 곳이다. 그 러니 내가 죽거든, 그 매바구 앞 산 중간 정도의 위치, 즉 들판이 훤히 보이고 남강물이 보이는 곳에 묘소를 잡아라. 그곳에서 나는 혼령이 되어 자자손손 내 후손들의 번창을 보살필 것이다. 그는 그가 남긴 말대로 그가 별세한 후, 그 후손들이 매마구 앞산에 그의 묘소를 모셨다.

그의 말대로 그 후손들은 자자손손 번창을 누리고 있다.

함안인 조차제 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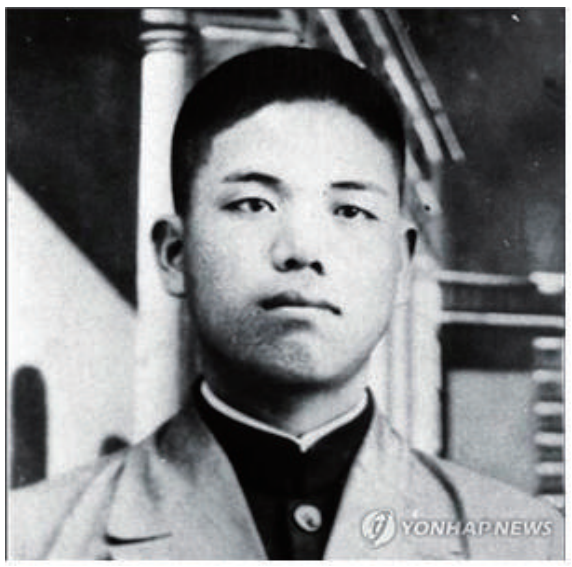
함안조씨 종회보

등록번호 : 함안 바, 00001

등록일자 : 2012년 8월16일

일왕 장인에 독검 날린 스물셋 조 명 하

1928년 대만서 '황족' 척살 나서 日에 충격안기고 타이베이서 순국 "안중근 · 윤봉길 · 이봉창과 함께 '4대 의사' 꼽히지만 제대로 조명 안돼 "조 의사 후손 "대만 관광지 갈 때 잠깐 만 할아버지 생각해 줬으면"



조명하 의사가 체포돼 조사 받은 타이중경찰서 (타이중 [대만]=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1928년 5월 조명하 의사가 일왕 히로히토(裕仁)의 장인인 구니노미야 구니요시 육군대장 척살을 시도했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조사를 받았던 타이중 경찰서. 현재도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대만 경찰이 경찰서로 사용중이다 (좌). 조명하 의사의 체포직후 사진. 체포와 조사 과정에서 구타를 당한 듯 얼굴이 심하게 부어 있다.

1928년 5월 14일 오전 9시 50분께 한반도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지배하에 있던 대만의 타이중(台中)시 중심 도로에서는 일왕 히로히토의 장인인 구니노미야 구니요시 육군 대장 일행의 긴 차량 행렬이 지나고 있었다.

'황족'(皇族)의 일원으로 군부 실력자인 구니노미야는 일본의 본격적인 중국 출병을 앞두고 전초 기지 격인 대만에 주둔하고 있는 군의 전비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특별 검열사' 자격으로 대만을 순시 중이었다.

구니노미야가 탄 차가 타이중주(州)도서관 앞 사거리 코너를 돌려고 속도를 줄였다. 그때 한 청년이 인파 속에서 달려 나오더니 구니노미야가 탄 무개차(無蓋車) 위로 순식간에 뛰어올랐다.

청년은 독을 바른 단검으로 일격을 가하려 했지만 구니노미야의 곁을 지키던 경호관에게 가로막혔다. 놀란 운전기사가 가속 페달을 밟아 차량이 멀어지자 청년은 손에 쥔 단검을 구니노미야를 향해 힘껏 던졌다.

날아간 단검은 구니노미야의 상체를 스쳐 지났다. 구니노미야는 찰과상을 입고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듯했지만 이로부터 8개월 만인 이듬해 1월 복막염으로 사망하게 된다.

청년은 현장에서 군중들을 향해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단지 조국 대한을 위해 복수를 한 것이다. 라고 외친 뒤 일본군경에게 체포됐다.

당시 스물셋이던 청년. 그가 바로 한국 독립운동의 '4대 의사' 중 한 명으로 손꼽히지만, 그간 우리나라에서조차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한 조명하(1905~1928년)다.

최근 조 의사의 의거지인 대만 타이중시의 옛 타이중주도서관(현 합작금고은행) 앞 사거리를 찾아갔다.

타이중주도서관 건물은 식민지 시대의 옛 모습을 간직한 채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일본을 충격의 도가니에 몰아넣은 의거가 일어난 지 91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이따금 울리는 경적 소리 속에서 차량과 오토바이의 물결만이 무심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안중근,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 의거처럼 잘 알려지지는 못했지만 조 의사의 구니노미야 척살(刺殺) 시.도는 당시 일본을 큰 충격에 빠뜨리고 대만을 뒤흔든 일대 사건이었다.

'친왕(親王) 전하'라고 불리던 구니노미야는 일본이 신성시하던 '황족'의 일원이자 히로히토.일왕의 장인이었을뿐만 아니라 일본 군부와 정계에 막강한 영향을 끼치는 실력자였다 또 1920년대 후반기에 접어들어서 대만에서 독립운동의 열기가 점차 약화하는 가운데 일본은 '문화 통치'를 통해 안정적인 식민지 지배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자부하던 터였다. 따라서 조 의사의 '타이중 의거'는 일제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사건 직후 대만에서는 휴교령이 내려진 가운데 한동안 가무를 포함한 일체의 문화 활동이 금지됐다. 일본 정부는 민심 동요를 우려해 일본과 대만, 조선에서 한 달간 조 의사 의거 관련 보도를 일절 금지하는 보도 통제에 나서기도 했다.

'타이중 의거' 여파로 대만 총독이 경질되는 사태로까지 이어진 것은 한국의 의열 투쟁 사상 전례가 없는 결과이기도 했다.

조명하 의사연구회 회원인 김상호 대만 슈핑(修平)과기대 교수는 "구니노미야의 일본 내 위상, 일본이 받은 충격에 비춰볼 때 조 의사의 의거는 우리 독립운동사에 큰 획을 긋는 엄청난 거사로 평가된다"며 "안중근, 윤봉길, 이봉창과 더불어 '4대 의사'로 평가받아야 마땅하지만 의거지가 일본이나 중국 본토가 아닌 대만이라는 점에서 그간 제대로 된 조명을 받지 못하신 측면이 있어 아쉽다"고 지적했다. 임시정부 외무부장 등을 지낸 조소앙이 쓴 독립운동가 공적 기록인 유방집(遺芳集) 등 자료에 따르면 조 의사는 황해도 송화군의 빈한한 집안에서 태어나 보통학교만을 졸업했지만, 독학으로 여러 외국어를 익히고 1926년 신천군의 서기로 채용될 정도로 명석한 청년이었다.

식민 체제에 순응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였지만 수개월 만에 군 서기직을 걷어차고 갓 태어난 아들과 부인을 고국에 남겨둔 채 일본을 거쳐 대만으로 건너가 목숨을 버릴 각오로 의거에 나섰다. 유방집은 조국을 떠나던 조 의사의 심경을 이렇게 기록한다.

"신천군 말단으로 봉직하며 더 이상 적들의 압력에 견딜 수 없자 과감하게 적의 수뇌를 암살할 것을 결심하고 1926년 홀연히 오사카로 떠났다. "의거 직후 현장에서 붙잡힌 조 의사는 타이중 경찰서로 끌려가 조사를 받았다. 체포 직후 찍힌 사진을 보면 그의 얼굴이 퉁퉁 부어 있어 체포 및 조사 과정에서 심한 구타를 당했음을 짐작게 한다.조 의사는 이후 타이베이(台北)형무소로 옮겨지고 나서 '황족 위해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1928년 10월 10일오전 10시, 조 의사는 타이베이형무소에서 순국해 스물셋의 불꽃 같은 짧은 삶을 마감하게 된다. 그는 사형 집행 전 형무소 관리들에게 "나는 이미 삼한의 원수를 갚았노라. 더 남길 말이 없다. 단지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하는 것이 한스러울 따름이다"라는 마지막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진다.

조 의사 순국지인 타이베이형무소는 타오위안(桃園)으로 옮겨지면서 철거됐지만 옛 형무소의 벽 일부는 대만 정부가 지정한 유적으로 남아 보전돼 있었다. 3m가량 높이의 벽을 따라 걷다 보니 지금은 벽돌로 막힌 옛 형무소 북쪽 쪽문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 형무소에서 사형을 당한 이들의 시신이 밖으로 나간 문이다.

타이베이형무소에서 순국한 조 의사의 시신 역시 이곳으로 나와 인근 형무소 묘지의 차가운 땅속에 묻혔다고 생각하니 절로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조 의사의 의거가 상대적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것은 의거지가 독립운동의 주 무대였던 중국 본토가 아닌 대만이었다는 점, 순수한 단독 거사여서 의거를 증명하고 기려줄 동료들과 조직이 없던 점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역사학자들은 지적한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대만 현지에서 조 의사 의거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작년 4월 의거 90주년을 기념해 타이중시 정부가 옛 타이중주도서관 앞 사거리에 의거 사실과 역사적 의의를 설명하는 중국어, 한국어, 영어 3개국어로 된 안내판인 '고시패'를 설치한 것이 대표적이다.

일본에 우호적인 기류가 강한 대만에서 항일운동을 벌인 외국 독립투사를 기리는 기념비가 세워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타이중의 민간 역사학자 천옌빈(陳彦斌)씨는 "똑같이 식민 지배를 받았지만 한국인들은 이를 부득부득 갈 정도로 분노했고 조명하 의사는 심지어 목숨을 내놓고 구니노미야를 황천으로 보내려 했다"며 "존경스러운 일로 우리 대만인들이 깊이 생각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조 의사의 장손인 조경환씨는 "할아버지께서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의사이신데도 그간 한국에서 잘 기억되지 못했는데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할아버지께서 얼마나 억울하실까 하는 생각이 부쩍 든다"며 "'꽃보다 할배' 방송 이후로 많은 한국 젊은이들이 대만을 찾아가는데 관광지나 맛집을 찾아가는 길에 잠깐만이라도 할아버지를 생각해준다면 더 바랄 일이 없다"고 말했다. (퍼옴)

제76호 협찬금 명단

(2020년 2월 1일~ 10월 25일)
입금순, 단위 : 천원

〈임 원 회 비〉

趙性勳	함안	감 사	200
趙政奎	함안	감 사	200
趙鏞河	청송	부 회 장	200
趙顯旭	울산	운영위원	200

〈종회 운영 협찬〉

趙貴衡	서울	뿌리찾기종원	50
趙聖來	창원	대표고문	100
趙忠億	문경	자문위원	200
趙昌顯	함양	자문위원	50
趙 濬	대전	고 문	200

〈종 회 보 협찬〉

조충억	경북	문경	200
조종연	부산	해운대구	300
조승제	경기	용인	100
조기성	전남	광양	20
조만선	강원	강릉	50
조창제	경북	성주	30
조상일	대구	달서구	300
조만제	함안	칠원	100

대종회는 종원 여러분의 성원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종회는 종원 여러분의 협찬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종원님들의 협찬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가경제가 어려워 종원님들의 경제 사정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오나 종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는 종사운영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종사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성원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년 회 비		운영 협찬금	종회보
원파분담금	임원,운영위원		
50만원	20만원	기준 없음	기준 없음

계 좌 번 호		
연회비 협찬금 종회보	농협 177441-51-001861	함안조씨대종회

우리 함안조씨대종회는
종원 여러분의
성의와 협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면으로 나마 감사인사 올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신 종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건승을 빕니다.
함안조씨대종회는
종원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겠습니다.